

함평군 '2030 미래 비전' 로드맵 만든다

정책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4차산업 시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광주전남연구원 10개월간 용역

함평군이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함평군은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평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은 지난 2000년 '함평군 종합발전계획'에 머물러 있던 낡은 규정 발전방안을 탈피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체계적인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방향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과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면서 함평군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함평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광주전남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며 앞으로 10개월여간 진행된다.

연구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함평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로 부자되는 함평 ▲융복합 생명산업 육성으로 풍요로운 함평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를 품은 함평 등 4개 목표를 설정했다. 군

전 지역(총 범위 392.1km)은 물론 연계협력 및 광역과제 사업일 경우 인근 시·군을 포함해 용역을 진행한다.

함평군의 여건과 국내외적 변화를 고려한 지역 현황 조사·분석, 개발 여건분석 등을 진행하고 지역별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구성, 경제·문화·관광·환경·복지 등 분야별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담당부서별 간담회,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함평

군 발전을 위한 20대 전략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물은 향후 군정운영의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함평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대한 일"이라며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각 분야별 발전방향은 물론, 상위계획과 능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기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 농산물로 만든 다채로운 먹거리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플라워푸드교육장'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 프로그램을 제 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 콘텐츠의 하나로 개발한 무화과 브런치. <함평군 제공>



강진군 도암면 옥전마을에서 올해 첫 '한살 벼' 수확이 이뤄졌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도암면, 8월 18일 쌀의 날을 첫 벼 수확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 제정한 '쌀의 날'인 지난 18일 강진군 도암면 옥전마을에서 올해 첫 벼를 수확했다.

<사진>

이날 수확한 조생종 '한살' 벼는 병충해 1회 관주처리 농법을 사용해 못자리에서 한 번의 약제처리 기술로 재배한 것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에 시범 도입해 지역 내 조생종 조기재배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으며 재배 면적은 전남 최대인 약 300

ha 이상이다.

한살은 7월 초 생육중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잎도열병 및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없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첫 수확을 한 김군자씨는 "기술이 도입되자마자 조생종 벼 전체 면적에 1회 관주처리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며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피해 없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미래 신성장 동력·신규사업 발굴 주력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현안·국비·공약사업 등 점검

화순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과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화순군은 18일 김종갑 부군수 주재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에서 현안사업과 국비확보 상황, 신규사업 발굴, 공약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화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화순사랑상품권 카드형 이용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화순군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 분야에서는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관련 사업 발굴 등이 제기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화순 적벽의 상시개방에 대비한 시설 조성 운영 방안, 연동리 숲정이 관광지 조성, 세량지 힐링 캠퍼 조성, 주자묘 정비 사업, 예술인촌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총 98개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2회 추경예산 622억원 증액 편성

담양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6141억원으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2%인 622억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편성한 2회 추경 중 일반회계는 619억원(11.4%)이 증액된 6024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2.5%)이 늘어난 117억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예산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그동안 예상치 못

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돼 온 주민 숙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재정지원 예산 또한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8000만원 ▲담양 다목적 공공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 40억6000만원 ▲스마트관광관리 시스템구축사업 등 환경보호분야 121억1000만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168억4000만원 등이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군 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 대폭 확대"

삼서농협-국방부 계약 체결

전년보다 64% 증가 53억원 규모

장성군이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인 상무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농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군납조합인 삼서농협과 국방부가 군부대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31사단에 이어 51군수지원단에도 장성 농산물이 납품된다. 51군수지원단은 호남지역 군 부대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총 계약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64% 증액된 53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3월까지 116개 품목 2007톤에 달하는 농산물이 군부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군 급식 공급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지난 2019년 '지역 농산물 군 급식 확대 공급지역'에 선정된 장성군은 올해 4월 '군 급식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열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전 처리하고 깎양파, 자른 단호박 등



지난 4월 문을 연 장성군의 '군 급식 로컬푸드지원센터'. 장성군은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반가공품을 생산해 군에 납품하고 있다.

아울러, 군청에 장성먹거리사업단을 조직해 군 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출하 농가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은 오는 2022년까지 군 부대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 급식에 장성지역 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하면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장병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군(軍)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